

전북대 정영주 박사, 성인간호학회우수연구 포스터상

전북대학교 정영주 박사(간호대학·지도교수 김희선)가 최근 열린 한국성인간호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우선순위와 전략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주제로 간호의 디지털 혁신과 학문 간 융합을 목표로 한 다양한 연구가 소개됐다.

정 박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발 예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효과'라는 연구 성과를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연구는 뇌졸중 환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요구도와 특성에 맞게 뇌졸중 재발예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환자들에게 적용한 것이다. 이는 뇌졸중 환자의 약물복용이행,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활동을 향상시키고 혈압,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및 악력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모바일 헬스케어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분야 학계에서 공인력 있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정은성기자

정읍시 문화제 부도상에 최연임씨 선정

'제32회 정읍시 문화제 부도상'에 정읍시 정우면에 거주하는 최연임(73)씨가 선정됐다.



(사)정읍시문화제제정위원회(이사장 조택수)는 지난 10일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도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를 올해의 부도상에 선정했다.

최 씨는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위해 45년간 자급정성으로 돌보았다. 뿐만 아니라 병환 중인 친정어머니와 몸이 불편한 여동생을 극진히 살피는 등 남다른 가족사랑 실천으로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재활을 돕고,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는 등 선행을 이어왔다.

최 씨는 2010년부터 정우면 정토마을 새마을부녀회장을 역임하면서 마을 행사에도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마을의 행사와 업무에 협조적이며 주민들의 크고 작은 경조사를 챙기는 등 주민들과의 화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마을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남원시, 한전·한전MCS와 업무 협약

남원시는 14일,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 한전MCS 남원지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이환주 시장, 안윤환 한전 남원지점장(안윤환), 장시영 한전MCS 남원지점장(장시영)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검침원 15명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고, 취약계층 위기가정 및 전기요금 장기체납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 가구에 대해서는 즉시 주민복지과에 통보해 사려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한전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세대를 추천받아 전기검침은 물론 LED 전구교체 등 오래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정에너지, 진안 마령 찾아 지역농산물세트기부

진안군 마령면은 14일 태양광에너지 회사인 (주)서정에너지(대표 서원필)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도라지, 더덕 선물세트 100세트(3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마령면은 기부한 농산물 세트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107가구를 선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위축된 면민들에게 배부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할 예정이다.

/진안=유태만 기자

“힘든 상황일지라도 서로 도우며 이겨냈으면”

전북은행 지역사회봉사단, 1000만원 상당 생필품 기탁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서한국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통시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에 온정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14일 임직원들이 급여를 모아 마련한 성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매해 전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서한국 은행장과 정원호 노조위원장(전북은행지

역 사랑봉사단 공동단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남부시장 일대를 돌며 물품을 구매했다. 시에 기탁한 물품들은 시설에서 외로운 명절을 보낼 아동 및 장애인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원호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명절이 더욱 힘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 활동에 나섰다”면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서로 도우며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진안군, 의회·농협 추석맞이 농산물 판촉행사 실시

진안군, 군의회와 농협(군지부·지역농협·조공법인)은 지난 1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진안군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농협광주유통센터와 호남농산물 물류센터에서 '추석맞이 진안고원농산물(선물세트)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추석명절 기간 동안 농협광주유통센터와 호남·수도권 지역 농협에서 진안군 우수농산물(사과, 토마토 등)이 판매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군의장, 정미경 농협진안군지부장을 비롯해 허남규(진안농협), 신용빈(백운농협), 김영배(부귀농협) 조합장, 최정진 조공법인 대표 등 행정, 의회, 농협 관계자들이 함께 행사장을

찾아 홍보요원을 자처했다. 정미경 지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농협 등 대형매장에서 판촉행사를 통해 진안군 농산물이 꾸준히 판매될 수 있도록 농산물 관료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장은 “수도권(서울 양재, 경기 성남) 및 전주점 통합판촉행사(21.7.29) 성공에 따른 지역주도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체제로 진안군 농산물 마케팅 기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은 고품질 지역농산물 생산지원과 농산물 소비촉진, 판매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북자본센터, 1석2조 상생나눔 사회공헌

(사)전북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는 14일 무주군 장도교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의 에너지 사랑봉사단 10명이 참여해 '1석 2조 상생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1석 2조 상생 나눔 사회공헌활동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도내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원과 급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센터에서 기획한 사회공헌활동 프로젝트이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무주군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품을 직접 구매, 무주군 내 급식 취약계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불고기, 김치, 송편, 머루유과 등의 밑반찬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후원하는 전장김 선물세트를 더해 풍성한 나눔을 실시했다.

밑반찬 나눔을 위해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에서 꼭 지원이 필요한 지역 수혜자를 선별했고, 무주센터의 맛나 봉사단도 활동에 함께 참여 나누는 즐거움과 더하는 행복을 실천했다.

/유호상 기자



농협은행 전주시점, 아동복지시설에 간식 후원

농협은행 전주시점(지점장 장정선)은 14일 지역 내 보육시설과 영아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양파빵 500개를 전주시에 전달했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최근 양파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주)파리크라스에서 우리 양파로 양파빵을 만든 뒤 농협은행이 양파빵을 구매해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장정선 지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아동들이 외롭지 않도록 작은 나눔의 마음을 전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건협 전북도회, 추석 명절 2000만원 성금기탁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추석명절을 앞둔 14일 전라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에게 불우이웃 돕기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윤방섭 회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협 전북도회는 매년 추석과 연말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기부금을 포함하면 기부 누적액은 총3억5천5백만 원에 이른다.

/김윤성 기자

호원대 이재민, KBO 한화 이글스 지명



호원대학교 야구단의 이재민 학생(스포츠경영학과 4년)이 한화 이글스의 지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재민 선수는 지난 13일 서울 블루스케어 카오스홀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2021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선수 1006명 중 8라운드 전체 71순위로 지명을 받았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야수였던 이재민 선수는 고3부터 투수로 전향했다.

이 선수는 2021 KUSF 대학야구 U리그에서는 예선전과 왕중왕전을 포함해 6경기 4승 평균자책점 1.70으로 호원대학교의 16강 진출을 이끌었고, 제5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에서는 계명대를 상대로 80년 1실점(지책) 6피안타 1볼넷 8K로 팀을 승리 이끌었다.

/정은성 기자



전북농협·여성단체협, 추석 맞아 농촌일손돕기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희) 임직원은 지난 13일 추석명절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장수군 일원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지난 5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한국결스카우트 전북연맹(회장 김경희), 전라북도 재향군인회여성회(회장 박진숙), 전라북도 간호사회(회장 안옥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북지회(회장 오정아), 농협농신보남원센터(센터장 남용수)의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사과박스 포장작업을 도왔다.

/김윤성 기자



국민연금, 소외계층에 추석 제수용 과일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14일 공단 본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수용 과일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지역 농민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김용진 이사장은 전북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전북지역 14개 시·군 소외계층 600가구에 2,100만 원 상당의 제수용 과일 세트'를 전달했다.

/김윤성 기자

남원 인월 흥부골 남원추어탕, 이웃돕기 물품기탁

남원시 인월면(면장 이은주)은 관내 흥부골 남원추어탕(대표 소재봉)에서 지난 14일 이웃돕기 물품으로 백미 10kg 31포(환가액 100만원)를 관내 거주하는 독거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고 지난 14일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소재봉 대표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명절과 행사 때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을 28년째 꾸준히 하고 있다. 이번에도 물품을 기탁하여 '사랑 나눔'의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사 010-985-4113	중원지사 010-938-6874	남원지사 682-3886	고창지사 688-6889
삼천지사 010-2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16-1227	임실지사 010-982-2725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74	안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지사 010-695-995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82-08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9-0088	순창지사 683-0444	장수지사 010-382-6157
	익산지사 688-9923	부안지사 010-245-4182	무주지사 010-230-4253